

2019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 2019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5,481,163	5,395,163	86,000	1.6
사업비	5,413,911	5,327,911	86,000	1.6
행정운영경비	67,252	67,252	-	-
일반회계	67,252	67,252	-	-
행정운영경비	67,252	67,252	-	-
도시개발특별회계	5,413,911	5,327,911	86,000	1.6
사업비	5,413,911	5,327,911	86,000	1.6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특별 회계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500,000	400,000	100,000	25.0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감액)	-	679,000	△679,000	△100.0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도입 및 기본계획수립	805,422	155,422	650,000	418.2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감액)	-	150,000	△150,000	△100.0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	590,000	500,000	90,000	18.0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신규)	75,000	-	75,000	순증

Ⅲ. 검토의견

1. 총괄

- ‘공공개발기획단’은 ‘도시재생본부’ 내 ‘공공개발센터’에서 금년 초에 확대·개편된 조직으로서 2019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음
-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19년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53억 9천 5백만원)보다 8천 6백만원 증액(1.6%)된 54억 8천 백만원으로, 추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만 편성됨.

2. 세출 관련

- 일반회계는 추가 편성이 없으며, 추경 편성을 요청한 6개 사업은 전액 시비투자 사업으로 모두 도시개발 특별회계임. 이 중 전액 감액을 요청한 사업이 2건, 증추경 사업이 3건, 신규 편성한 사업 1건임.

▶ 전액 감액 사업 - 총 2건 (△8억 2천9백만원)

-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서울시 관할 한강 41.5km 구간을 대상으로 한강 중심의 미래 수변도시 창출 전략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¹⁾해오던 사항이나, 신곡수중보 개방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금년 내 용역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	679,000	△679,000	◦ 한강 신도시재생 용역 679,000

1) 주요 추진경위

- `18.2 「한강관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술용역 추진
- `18.8 신곡수중보 등 환경단체 반대를 고려하여 입찰 취소
- `18.10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변경 추진
- `19.6 「신곡수중보 개방 실증용역」(물순환안전국, `19.11)이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사업 추진 불투명하여 전액 감액

- 이 사업은 수도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자연문화유산으로서 한강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도심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정책방향 정립이 지연되어 사업이 정체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예산편성 이전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로 성급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데 원인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의 일관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업은 금천경찰서(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44)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18.12.26)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위탁개발→공공주택건설사업)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SH가 직접 수행하게 되어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을 감액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	150,000	△150,000	○ 타당성 조사 150,000

- 이는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가용지 활용방향을 주택공급에 맞추어 변경한 것으로 이해되나,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다수의 가용지 활용을 일자리·고용, 복지·의료 등 타 시설에 비해 우선하여 주택공급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발생할 가용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증액 요청 사업 - 총 3건 (8억 4천만원)

○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은 총 3건으로, 추경 편성으로 사업의 시기를 단축하여 조기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기 조성된 서울숲과 그 일대에 대하여 보다 시민활용도가 높고 완결성·연계성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18.3 대외발표²⁾)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처분계획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에 성수공장부지에서 응봉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³⁾하고자 1억원을 증추경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500,000	400,000	100,000	서울숲 보행교 기본계획 용역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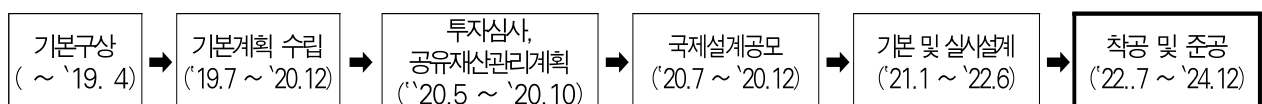
- 이는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투자심사 및 국제설계공모(‘20), 기본 및 실시계획(~’22 상반기)을 거쳐 ’22.7월 착공을 목표⁴⁾로 추진 중인 보행교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의 이전 후 공원 조성을 위한 착공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의 시민체감도를 극대화하고, 그동안 연계성이 미약했던 서측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단계별 진행상황, 공모결과 등 대시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추진 과정 상에서도 성숙한 시민참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숲 과학문화 미래관 건립 (서울시-포스코 민관협력사업 추진)
-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서울시-현대제철-삼표산업 협약)
- 서울숲 일대 보행교 건립 (서울시)

3) ‘보행교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기획, 교량에 대한 기본계획, 공모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2020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서울숲 일대 보행교 건립 추진일정(안)



○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변 주요 관광·교통거점에 대하여 신교통수단(곤돌라 등)을 도입하여 시민 편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5,542만원이 편성되었음.

- 신교통수단의 종류는 수송능력, 경관영향 등을 고려하여 ‘곤돌라5’)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 구간은 생활인구 밀집도, 도시철도 접근성, 주요 개발거점 등을 고려하여 한강을 4개 권역(난지권역, 여의도권역, 이촌권역, 잠실권역)으로 구분하고 교통 보완 및 거점 연계 효과가 큰 시범사업 2개 노선을 선정중임. 금번에 추경을 요청하는 사항은 2개 구간에 대한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6억 5천만원을 증추경하는 사안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805,422	155,422	6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250,000 ◦ 타당성 조사 수수료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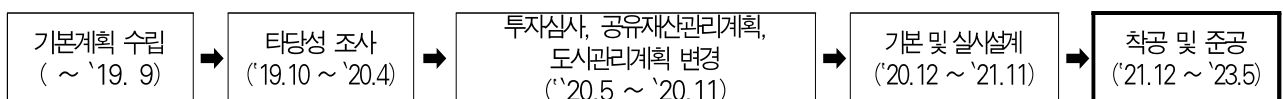
- 본 사업은 착공 전 거쳐야하는 법적 이행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19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진행함으로써 준공 시기를 단축('21년 착공 목표6)) 하고 신이동수단을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노선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 등 금번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기본계획 수립’ 시 타 수단(보행교, 리버버스, 수륙양용버스 등)과 비교 결과, 곤돌라가 비용, 친환경성, 수송성, 연계편의성, 동일 승객 수송에 대한 소비 전력량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

※ ‘한강권역 곤돌라 도입을 위한 효과’에 대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2,000명) 긍정적인 답변이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활성화에 도움(45.5%) / 교통개선에 도움(23.3%) / 일부 도움되나 환경파괴 등 우려(16.3%) /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에 도움 안 됨(14.1%) 순으로 나타남

6) 한강권역 신이동수단 도입 사업 추진일정(안)



-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호창공원 일대의 독립운동가 묘역 등 사적시설 등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초 추진예정인 국제현상설계 공모의 사전 준비를 위해 공모관리용역비 2억원 중 우선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590,000	500,000	90,000	◦ 공모관리용역 90,000

-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공모관리를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와 역할 분장을 통해 해당 항목의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즉 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 현상설계 공모는 시에서 추진하고(‘20년까지 총 7억원), 관련 기관·단체간 포럼운영 · 공모 당선작 상금 지급은 보훈처에서 시행할 예정이며(3억), 2020년부터는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편성할 계획임.
- 본 사업은 시 내부적(복지정책실, 관광체육국, 푸른도시국 등)으로 뿐 아니라 국가 기관(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등) 및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간 합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민선 7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신규 사업 - 총 1건 (7천5백만원)

-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공공기관 이적지7) 활용방안 수립’은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18.8.19 발표)의 일환으로 기 이전된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양재동 → 은평구 진관동)와 이전 예정인 인근 공공기관 이적지의 선제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이전 및 활용을 지원하고자 7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7) 이적지 : 시설 이전 후 남겨지는 부지 (cf. 이전지 : 시설이 옮겨가는 부지)

예시 : 시설이 A부지에서 B부지로 옮기는 경우 - A부지=이적지, B부지=이전지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 설 비	75,000	-	75,000	◦ 활용방안 용역 75,000

-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18.8) 이후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TF⁸⁾'를 운영하여 이전기관 선정, 이전지 물색 등 정책을 구체화하였고, TF 결과 부서별 역할분장에 따라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 4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8) 총 괄 : 총무과

이전기관선정 및 당위성 검토 : 서울연

이전지 검토 : 도시공간개선단

이적지 검토 : 공공개발기획단